

닛산, 전기자동차에 안전 경고를 위한 소음 기능

보행자 안전 위해 소리효과기능을 추가



▲ 닛산자동차는 '리프' 차종에 이어 고급차 '푸가'의 하이브리드차(HV)에도 주행음을 내는 표준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닛산자동차는 전기자동차(EV)나 하이브리드자동차(HV)에 주행음을 내는 장치를 표준 장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HV자동차나 EV자동차가 너무 조용해 보행자나 시각장애인들이 차량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관련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닛산자동차의 소리효과 기능은 차임벨부터 미래형 자동차소리까지 수백 가지의 소리를 연구한 후 결정된 것이다. 자동차속력에 따라 크기가 변하며 정체시에는 쟁그랑 소리를 내게 된다.

즉 주행음은 내장된 컴퓨터 등에서 차량 속도에 따라 소리를 만들어 스피커로 내는 구조로서 모터음을 닮았다. 발진시에는 시속 30킬로미터에 이를 때까지, 감속시는 25킬로미터 이하가 되면 나온다. 후퇴시에도 끊어졌다 이어졌다하면서 소리를 낸다. 그러나 차내에서는 들리지 않아 주행시의 쾌적성은 유지했다. 이번 경고효과음 선정 과정에는 시각장애인 변호인단, 할리우드 음향디자인 회사, 음향심리사 등이 참여했다. 닛산 관계자는 "조용한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12월부터 미국 일부에서 소리효과 기능이 추가된 Leaf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V자동차, 저속상태에서 보행자 사고비율 높아

이에 앞서 미국 의회와 규제기관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경고 음향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지를 연구해왔다. 현재 160만 대의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으며 Leaf의 도입으로 전기자동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전전문가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경고해 왔다. 작년 미국 고속도로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의 연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저속상태에서의 보행자 사고비율이 일반자동차의 두 배에 이른다. 한편 닛산자동차는 지난 1월, 자동차에 전자음을 내는 장치를 달 때의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이번 가을 발매될 고급차 '푸가'의 HV차에도 주행음을 내는 표준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미쓰비시자동차도 이번 가을부터 판매 중인 EV '아이 비브'에 이 장비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